

아동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PBA-Q) 한국판 척도 타당화*

Received: April 15 2026
Revised: June 04 2026
Accepted: June 08 2026

이다랑¹, 남은영²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학생¹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교수²

교신저자: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E-MAIL: nahmey@swu.ac.kr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Questionnaire (PBA-Q)

Darang Lee¹, Eun Young Nahm²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 Student¹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 Professor²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BSTRACT

본 연구는 Francis와 Chorpita(2010)가 개발한 '아동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 척도(PBA-Q)'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4-1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529명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판 PBA-Q(아동용)는 원척도의 4요인 구조와 다르게 '아동의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F1)'과 '아동 불안 신체화에 대한 건강염려(F2)'의 2요인, 13문항 구조로 재정립되었다. 구조방정식모델(SEM)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불안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PBA의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F1은 양육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내면화 문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인 반면, F2는 아동의 강박 증상에 대해 미약한 수준의 부적 직접 효과를 나타내어 부모 신념의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불안 신념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를 확보하고, 아동 불안 중재 시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을 표적으로 하는 인지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동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PBA-Q), 아동 불안, 척도 타당화, 구조방정식모형(SEM)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녀가 불안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모의 반응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일부 부모는 자녀가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반면, 또 다른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상황을 회피하도록 돕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Beato et al., 2017; Lebowitz et al., 2013). 이러한 반응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양육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하는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Bornstein et al., 2018; Creswell & O'Connor, 2006).

부모의 이러한 반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동기 불안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여 부모의 반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불안 장애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 병리 중 하나로(Beesdo et al., 2009), 전 세계적으로 약 6.5%의 유병률을 보이며(Polanczyk et al., 2015), 평균 발병 연령은 4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반면,(Ver Pault et al., 2024) 실제 치료가 시작되는 평균 연령은 10.7세로 보고되어(Hammerness et al., 2008), 발병과 임상적 개입 사이에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양육자가 조성하는 가정 내 정서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아동기 불안 문제는 학업 성취의 저하, 또래 관계의 어려움, 가족 기능의 손상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적응 문제를 초래하고(고인숙, 2010; 이태완 외, 2018; Ver Pault et al., 2024), 동반 우울증 및 물질 사용 관련 장애 위험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Beesdo et al., 2007; Costello et al., 2003; Lieb et al., 2016). 적절한 시기에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까지

만성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Hudson et al., 2019; Tolliver-Lynn, 2021; Ver Pault et al., 2024), 이 시기 부모가 자녀의 불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불안의 만성화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불안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다. 다양한 발달 정신병리학 모델들은 아동의 불안 장애 위험을 높이는 핵심 가족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불안 및 양육 관련 변인을 제시하였으며(Dodd et al., 2017),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 비판, 불안 회피 행동 모델링, 처벌적 반응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Hudson & Rapee, 2001; Melamed, 1993; Rork & Morris, 2009; Van der Bruggen et al., 2008; Zabin & Melamed, 1980).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 행동과 아동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 중간에서 큰 수준의 효과 크기가 확인된 바 있다(McLeod et al., 2007; Van der Bruggen et al., 2008). 특히 불안한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이러한 불안 촉진적 양육 행동을 더 빈번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관찰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어머니는 통제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빈도가 낮고, 온정적 반응이 부족하며,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aley et al., 1999). 또한 불안한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Woodruff-Borden et al., 2002), 최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매개되어 아동의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경로도 확인되었다(홍수빈,

남은영, 2024).

이처럼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불안 전이는 유전적 경로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지지적 정서 반응, 위협 인식의 모방, 그리고 회피를 조장하는 양육 행동 등 다양한 환경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거나 축소하려 할 경우 자녀는 정서 경험에 적절히 대처할 기회를 박탈당해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며(남은영, 박소은, 이선형, 2025), Eisenberg 등(1998)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거나 처벌할 경우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감정의 의미를 탐구하고 대처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안한 부모는 두려운 표정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게 위협적 인식과 회피 행동을 강화하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Dubi et al., 2008), 이는 자녀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발달을 저해하여 이후 불안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 나아가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심시키기'나 두려운 상황을 피하도록 일상을 변경하는 '수용'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동이 두려운 자극에 직면하고 이를 숙달할 기회를 박탈하여 불안을 부적응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Beato & Rosa, 2024).

그렇다면 동일한 불안 수준을 지닌 부모들 사이에서도 왜 이러한 양육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정서 사회화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 관련 신념과 철학이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임이 폭넓게 확인되어 왔다. Eisenberg 등(1998)은 부모의 감정 관련 사회화 행동(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ERSB)이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 철학, 부모 자신의 정서 조절 능력 및 정서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ERSB가 자녀의 감정에 대한 반응, 감정에 대한 논의, 감정 표현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정서 관련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반응의 질적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각성 수준과 조절 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et al., 1998). 이처럼 부모의 정서 관련 신념이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연구들은 부모의 외현적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인지적 기제, 즉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PBA)'에 주목하고 있다(Francis & Chorpita, 2010; Friedman et al., 2023).

PBA란 '자녀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해롭다'거나 '자녀의 불안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와 같은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Francis & Chorpita, 2010). 이러한 관점은 Gottman 등(1996)이 제안한 부모의 상위정서철학(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PMEP) 개념과 이론적 맥을 같이한다. PMEP란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자녀의 감정에 대해 갖는 생각, 감정, 신념의 체계를 의미하며, 이 철학이 자녀의 감정에 대한 부모의 행동적 반응을 결정한다(Gottman et al., 1996; Merchant, 2024). 최근의 문헌 검토에서는 PMEP가 도전적인 가정 환경(가정 스트레스, 모성 증상 증가 등)과 아동의 내재화 행동 사이에서 조절 변수, 즉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Cohodes et al., 2017; Lobo et al.,

2021; Merchant, 2024), 이는 부모의 정서 관련 신념이 불리한 환경에서도 아동의 정서적 역량 발달을 보호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BA는 일종의 자녀에 대한 불안 민감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둘러싼 모호한 상황을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자녀의 정상적인 긴장 반응조차 위험한 신호로 오지각하는 특성을 포함한다(Francis & Chorpita, 2010).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과 부모 자신의 정서 조절 어려움은 자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견디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Hurrell et al., 2017; Price & Kiel, 2022), 자녀의 고통을 예방하려는 과도한 통제 및 과보호 행동, 그리고 자녀의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의 일상을 변경하거나 회피를 조장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인지적 원인으로 작용한다(Francis & Manley, 2022; Friedman et al., 2023). 이는 동일한 불안 수준을 지닌 부모라도, 자녀의 불안을 위협한 것으로 믿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통제적·회피 촉진적 양육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PBA의 임상적 중요성은 매개 효과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Francis와 Chorpita (2011)는 부모의 불안이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PBA가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밝혔으며, Francis와 Manley(2022)의 연구에서도 부모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과잉 통제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면서 청소년의 불안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Friedman 등(2023)은 부모의 불안 및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PBA를 거쳐 불안한 양육 행동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PBA가 부모의 불안을 부적응적 양육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기제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불안 수준 자체

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하는지가 자녀의 불안 발달 및 치료 경과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의 불안이 해롭다는 신념을 지닌 부모는 자녀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 수용 행동을 더 빈번하게 나타내며(Johnco et al., 2022), 자녀의 노출 기반 치료 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낮거나(Pereira et al., 2016), 자녀가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격려하기보다 회피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저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ttipani & Kendall, 2017; Wolk et al., 2016). 따라서 PBA는 단순한 이론적 구성 개념에 그치지 않고, 임상 장면에서 부모 개입의 핵심 표적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노출 치료나 양육 행동 수정에 앞서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아동 불안 치료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Johnco et al., 2022).

기존의 아동 불안 관련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 행동(예: 과보호, 거부) 또는 전반적인 양육 스타일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McLeod et al., 2007), 국내 연구들 역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불안을 높이고 사회적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부모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이태완 외, 2018; 이하람, 신나나, 2020; 정영선, 2021).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불안에 대해 형성하는 구체적인 신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부모의 불안 관련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 척도들이 일부 개발되어 있으나(예: FASA, PABUA), 이들은 측정 범위에서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Flessner et al., 2017). 가족 수용 척도인

FASA는 부모가 자녀의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의 일과를 변경하거나 회피를 돕는 수용 행동 자체의 빈도를 측정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그 근본적인 인지적 선행 요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며(Flessner et al., 2017), PABUA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인 수용 수준을 측정하는 데 그친다. 이처럼 두 척도 모두 부분적인 태도나 행동 성향을 포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자녀의 불안이 해롭다’는 핵심적 신념, 모호한 상황에 대한 재앙화적 해석 경향, 그리고 불안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비합리적 예측과 같은 심층적인 인지적 기제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공통적 한계가 지적된다(Flessner et al.,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rancis와 Chorpita(2010)가 개발한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 설문지(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Questionnaire: PBA-Q)’는 불안의 유해성에 대한 신념, 재앙화적 사고, 그리고 불안에 대한 부정적 결과 예측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임상 집단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외현적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비합리적 인지 편향을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부모의 왜곡된 신념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아동 불안 가족 개입 장면에서 핵심적인 평가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PBA-Q의 한국어판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서구권 연구 결과를 국내 임상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국 특유의 양육 문화와 부모의 가치관을 고려해야 하므로, PBA-Q를 단순히 번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표본에서의 요인 구조, 신뢰도,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Francis와 Chorpita

(2010)가 개발하고 타당성을 입증한 PBA-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국내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측정적 속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한국판 PBA-Q(아동용)는 학술적, 임상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학술적으로는 아동 불안의 가족 내 전이 기제를 규명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연구가 부모의 외현적 양육 행동에 주로 집주해 왔다면(McLeod et al., 2007), 본 연구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기제인 ‘신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불안이 자녀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PBA가 갖는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불안 수준 자체보다 부모가 자녀의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강력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는 Francis와 Manley(2022)의 논의를 국내 표본을 통해 재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임상 현장에서는 아동 불안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 불안의 핵심 치료법인 노출 기반 인지행동치료(CBT)에서 부모의 낮은 치료 참여도와 저항은 치료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한국판 PBA 척도는 이러한 취약성을 지닌 부모를 조기에 선별하고 신념을 표적으로 한 인지적 개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Lebowitz et al., 2013; Pereira et al., 2016; Settapani & Kendall, 2017). 셋째, 사회적 예방 차원에서는 아동기 불안의 조기 발견 및 만성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타당화된 PBA 척도는 지역 사회 및 상담 현장에서 과보호적 양육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부모를 선별하는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자율성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하고 성인기의 우울 및 물질 사용 장애와 같은 이차적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1. 한국판 PBA-Q(아동용)는 어떤 요인구조로 구성되며 문항 정제 후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국판 PBA-Q(아동용)의 신뢰도(내적 일관성)와 준거타당도는 확보되는가?

연구 문제 3. 부모의 불안(DASS-21 불안)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쳐 불안·우울(RCADS-P)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PBA 요인이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양육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의 불안에 대한 양육 고민을 가진 부모들에게 연구를 소개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만 4~10세 아동을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한정하고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는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을 임상 표본이 아닌 일반 어머니로 구성한 것은 PBA-Q가 본래 임상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인지적 신념을 연속 변수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Francis & Chorpita, 2010), 척도 타당화의 1차 단계로서 일반 모집단에서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표준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총 529명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212명과 확

적 요인분석을 위한 317명을 각각 독립적으로 모집하여 동일 표본에서의 분석으로 인한 모형 적합도 과대추정을 방지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보다 엄정하게 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아동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PBA-Q)

Francis와 Chorpita(2010)가 개발한 PBA-Q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부모 보고식 척도로,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PBA-Q는 Reiss(1991)의 불안 민감성 이론과 모호한 자극에 대한 위협 해석 편향(Butler & Mathews, 1983) 이론에 기반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 자체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불안 경험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 신념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육 스타일 척도(예: EMBU)와 구분된다. 이 척도의 항목은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 자녀에게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믿음과, 자녀와 관련된 모호한 자극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반영한다(예: “아이가 불안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 Francis와 Chorpita(2010)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칙도는 다음의 4요인 구조로 보고되었다: (1) 자녀 불안에 대한 부모 자신의 정서적 반응(6문항), (2) 자녀 불안의 재앙적 결과에 대한 사고(6문항), (3) 자녀 불안의 발달적 정상성 인식(2~3문항), (4)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표지라는 신념(3문항). 원칙도는 본래 임상적으로 의뢰된 6~17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일반 부모 표본(Pereira et al., 2016; Wolk et al., 2016)과 청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FA(N=212) n (%)	CFA(N=317) n(%)	동질성 (p)
아동연령	만 4세	14 (6.6%)	22 (6.9%)	0.769
	만 5세	23 (10.8%)	35 (11.0%)	
	만 6세	39 (18.4%)	45 (14.2%)	
	만 7세	37 (17.5%)	49 (15.5%)	
	만 8세	36 (17.0%)	72 (22.7%)	
	만 9세	29 (13.7%)	55 (17.4%)	
	만 10세	34 (16.0%)	39 (12.3%)	
아동성별	남아	114 (53.8%)	170 (53.6%)	1
	여아	98 (46.2%)	147 (46.4%)	
어머니연령	20대	1 (0.5%)	1 (0.3%)	0.097
	30대	134 (63.2%)	171 (53.9%)	
	40대	77 (36.3%)	145 (45.7%)	
어머니 학력	고졸	5 (2.4%)	6 (1.9%)	0.535
	대졸	145 (68.4%)	231 (72.9%)	
	대학원졸	62 (29.2%)	80 (25.2%)	
가정소득수준	200만원이하	3 (1.4%)	2 (0.6%)	0.578
	200-400만원	25 (11.8%)	44 (13.9%)	
	400-600만원	73 (34.4%)	109 (34.4%)	
	600-800만원	60 (28.3%)	75 (23.7%)	
	800만원 이상	51 (24.1%)	87 (27.4%)	
지역	서울	54 (25.5%)	80 (25.2%)	0.956
	경기인천	82 (38.7%)	124 (39.1%)	
	충청	14 (6.6%)	22 (6.9%)	
	경상	35 (16.5%)	59 (18.6%)	
	전라	11 (5.2%)	14 (4.4%)	
	강원	8 (3.8%)	11 (3.5%)	
	제주	8 (3.8%)	7 (2.2%)	

소년 자녀를 둔 부모(Francis & Manley, 2022)에
서도 그 타당도가 일관되게 검증되어 왔다. 4점 척

도(0=전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로 채점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신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PBA-Q 개발 당시(Francis & Chorpita, 2010)의 Cronbach's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최종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원판 PBA-Q와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한국 상황에 맞게 변안·타당화한 척도는 '한국판 PBA-Q(아동용)'로 구분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부모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척도(DASS-21)

부모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K-DASS-21은 Lovibond와 Lovibond (1995)가 개발한 DASS를 Jun(2018)이 한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한 도구로 우울 7문항, 불안 7문항 및 스트레스 7문항의 총 21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전혀 해당되지 않음, 3=매우 해당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로 나타났다.

아동의 불안 및 우울척도(RCADS-P)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ence(1994)가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Chorpita 등(2000)이 제작한 아동 불안·우울 척도(Revised Child Anxiety and Depression Scales - Parent version, RCADS-P)를 이하람과 신나나(2020)가 국내 연구에서 변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Chorpita et al., 2000)는 PBA-Q의 개발 연구(Francis & Chorpita, 2010)에서 6 - 17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 척도는 총 4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은 일반불안(6문항), 사회불안(9문항), 분리불안(7문항), 공황(9문항), 우울(10문항), 강박(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불안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동 척도(PANAS)

부모의 긍정적 정동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등(2003)이 번역 및 타당화한 척도를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재타당화한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했다. 정적정서 10문항과 부적정서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에 해당하는 10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양육(CCNES)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은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이 제작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변안, 수정하여 사용한 배주희(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각각 6가지의 부모 반응 범주로 구성되어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12가지 상황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으로 처벌적 반응과 스트레스적 반응 2가지에 대한 문항 24개를 분석에 사용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Grolnick 등(1991)이 제작한 부모의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 POPS) 중 자율성 지지 관련 문항들과 Williams와 Deci(1996)의 학습 분위기 척도(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의 일부 문항 및 Soenens 등(2007)이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한 노보혜 등(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척도이며, 문항 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나는 아이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 해 준다.', '나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을 귀 기울여준다.',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어주려고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었다.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PBA)의 한국어판 개발을 위한 번안 타당화는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ITC)에서 제시한 「검사 번역/번안을 위한 국제 지침」(ITC, 2017)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번역 작업에는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각 문화권에서 거주 및 학업 경험이 풍부한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참여했다. 한 전문가는 원어(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순방향 번역(Forward Translation)을 담당하였으며, 다른 전문가는 번역된 한국어 문항을 다시 영어로 되돌리는 역번역(Back-Translation)을 수행했다. 연

구자는 원문항, 순번역 문항, 역번역 문항을 대조하며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미 손실·왜곡·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번역자들과 조율하여 최종 한국어 문항을 완성했다. 최종 문항은 사전 실시(Pilot Testing)를 위해 비슷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 30명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하였다. 이 사전 조사를 통해 문항의 명확성, 가독성, 그리고 응답 패턴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자료분석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R(Version 4.5.1) 및 RStudio(Version 2025.09.0)를 활용하였으며,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에는 lavaan 패키지(Rosseel, 2012)를 사용하였다. 먼저 문항 양호도를 점검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문항-총점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α)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준($r_{drop} > .30$)에 미달되는 3개 문항을 제거한 후 14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 요인 수의 적절성은 PCA 기반 병행분석(1,000회 무선 반복)으로 검증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하고 사각회전(Oblimin)을 적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CFI, TLI, SRMR, RMSEA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한국판 2요인 구조와 원척도(Francis & Chorpita, 2010)의 4요인 구조 간 적합성 비교를 위해 17문항에 대한 네 가지 경쟁 모형(1요인, 한국판 2요인, 원척도 4요인 단순구조, 원척도 4요인 교차부하 모형)을 BIC 차이값(Kass & Raftery, 1995)과 함께 비교하였다. 수렴 및 판별 타당도는 개념신뢰도(CR)와 평

균분산추출(AVE)을 산출하고 Fornell과 Larcker (1981)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였다. 외적 타당도는 외부 변인들을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양육 변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국판 PBA-Q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부모 불안이 PBA-Q와 양육 행동을 거쳐 아동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직렬 매개 경로분석(serial mediation 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RCADS 6개 하위척도와 PBA-Q 두 요인, DASS-A, CCNES, AUTO를 모두 평균점수로 구성하여 관측변수로 처리하였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5,000회 재표집, BCa 95%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문항분석 결과, 평균은 0.67~2.10, 표준편차는 0.64~0.90, 왜도는 -0.43~0.64, 첨도는 -0.77~0.45로 분포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문항-총점 상관분석에서 $r_{drop} < .30$ 기준에 미달되는 3개 문항(PBA6, PBA11, PBA13)이 확인되어 제거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17문항 .83에서 14문항 .85로 향상되었다.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KMO 값은 .86으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였고 (Kaiser, 197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chi^2 = 1,013.03$, $df = 91$, $p < .001$) 요인분석이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PCA 기반 병행분석(1,000회 무선 반복) 결과 2요인이 권

장되어 주축요인법으로 2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전(Oblimin)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 1의 고유값은 3.00(분산설명량 21.42%), 요인 2의 고유값은 2.69(분산설명량 19.21%)로 두 요인이 전체 분산의 40.63%를 설명하였으며, 두 요인 간 상관은 .48로 중간 수준의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PBA14 문항이 두 요인에 걸쳐 모호한 부하 패턴을 보여 추가로 제거되었고, 최종 13개 문항이 두 요인에 안정적으로 적재되었다.

요인 1은 자녀의 불안 경험에 대한 부모 자신의 정서적 반응 및 불편감을 반영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으로, 요인 2는 자녀의 신체 증상에 대한 부모의 건강염려를 반영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동 불안 신체화에 대한 건강염려'로 명명하였다.

경쟁모형 분석

한국판 2요인 구조가 원척도(Francis & Chorpita, 2010)의 4요인 구조보다 한국 자료에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CFA 표본($N = 317$)에서 17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한 네 가지 경쟁 모형을 비교하였다(표 2). 한국판 2요인 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와 BIC에서 1요인 및 원척도 4요인 모형보다 우수하였으며, 원척도 4요인 모형과의 BIC 차이는 매우 강한 증거 수준이었다($\Delta BIC = 72.0 \sim 112.3$; Kass & Raftery, 1995). 문항 정제 단계에서 제거된 문항들이 주로 원척도의 발달적 정상성 인식(요인 3)과 '좋은 부모' 신념(요인 4)에 속했다는 점에서, 한국판 2요인 구조는 단순한 문항 축소가 아니라 원척도 일부 하위 영역의 구조적 비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17문항 경쟁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BIC	ΔBIC
1요인	604.35	119	.707	.665	.113	.089	11201.9	+273.3
한국판2요인	325.31	118	.875	.856	.074	.066	10928.6	기준
원척도4요인(단순구조)	408.85	113	.821	.785	.091	.090	11040.9	+112.3
원척도4요인(교차부하)	356.93	111	.851	.818	.084	.081	11000.6	+72.0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3문항 2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CFA 표본(N = 317)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64) = 169.059$, $p < .001$, CFI = .921, TLI = .903, RMSEA = .077, SRMR = .063으로 권장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였다. 모든 문항의 표준화 부하량은 .489~.797 범위로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각 문항의 설명분산(R^2) 또한 .239~.63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두 요인 간 상관은 $r = .571$ 로 통계적으로 변별 가능한 수준이었다.

본 모형의 RMSEA(.077)와 TLI(.903)가 이상적 기준(RMSEA \leq .06, TLI \geq .95)에는 다소 못 미쳐, 부적합(misfit)의 소재를 점검하기 위해 수정지표와 표준화 잔차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수정지표의 최댓값은 PBA7과 PBA10 간 오차상관(MI = 19.03)이었는데, 두 문항은 모두 자녀의 사소한 신체·정서 신호를 심각한 결과로 해석하는 재앙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요인에 속한 두 문항 간 잔여 관련성이 이러한 내용상 중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수정지표는 모두 14 미만으로 여러 문항 쌍에 분산되었고, 표준화 잔차 또한 최댓값이 4.50으로 극단적이지 않았으며 특정 요인에 체계적으로 집중되지 않았다. 이처럼 단일

하게 두드러지는 부적합 원천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론적 근거 없는 사후적 오차상관 설정은 모형의 간명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MacCallum et al., 1992), 자료 주도적 수정 없이 이론에 근거한 13문항 2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유지하였다.

한국판 PBA-Q(아동용)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 13문항 2요인 모형의 표준화 부하량을 바탕으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산출하였다. 두 요인의 CR은 아동의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 .842, 아동 불안 신체화에 대한 건강염려 .839로 .70 기준을 충족하여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보였다. AVE는 아동 불안 신체화에 대한 건강염려 요인이 .512로 .50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아동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 요인은 .406으로 다소 미흡하였는데, CR이 .70을 충분히 상회할 경우 AVE가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렴타당도가 지지될 수 있다는 Fornell과 Larcker(1981) 및 Malhotra와 Dash(2011)의 기준에 따라 본 요인 또한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별타당도는 두 요인의 \sqrt{AVE} (각각 .637, .716)가 요인 간 상관(.571)을 상회하여 두 요인이 통계적으로 변별되는 구성개념임을 확인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Panel A. 모형 적합도 및 표준화 부하량							
		$\chi^2(p)$	<i>df</i>	<i>CFI</i>	<i>TLI</i>	<i>RMSEA</i>	<i>SRMR</i>
		169.059($p < 0.001$)	64	.921	.903	.077	.063
요인		문항			F1	F2	R ²
F1: 아동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	1.	아이가 속상해하면 나도 매우 불안해진다.			.651	.230	.423
	3.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566	.203	.320
	4.	나는 아이가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은 해롭다고 생각한다.			.532	.187	.283
	5.	아이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89	.245	.239
	7.	나는 아이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678	.242	.460
	9.	우리 아이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불편함을 느낀다.			.734	.262	.539
	12.	나는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			.797	.285	.636
F2: 아동 불안 신체화에 대한 건강염려	17.	나는 아이가 불안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90	.210	.348
	2.	나는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			.239	.675	.455
	8.	나는 아이가 아프면 매우 불안해진다.			.278	.769	.591
	10.	나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187	.592	.350
	15.	나는 아이가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다고 말하면 무섭고 불안해진다.			.280	.738	.545
	16.	나는 아이가 메스꺼움을 호소하면 불안해진다.			.281	.786	.617
Panel B. 개념신뢰도 및 판별타당도							
요인	문항 수		<i>CR</i>	<i>AVE</i>	\sqrt{AVE}		
F1	8		.842	.406	.637		
F2	5		.839	.512	.716		

준거타당도

한국판 PBA-Q(아동용)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정신건강(DASS-21 우울·불안·스트레스), 부모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CCNES 처벌·심리고통), 자녀의 내면화 문제(RCADS-P), 그

리고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양육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한국판 PBA-Q의 두 요인은 부모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F1 $r = .319 \sim .505$, F2 $r = .257 \sim .368$, 모두 $p < .001$), 이는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어려움과 동반된다는 이론적

표 4. 준거타당도 분석결과

변인	F1(정서적 취약성)	F2 (건강염려)
DASS-21 불안	.424***	.350***
DASS-21 우울	.319***	.257***
DASS-21 스트레스	.505***	.368***
CCNES 처벌 반응	.340***	.114*
CCNES 심리고통 반응	.519***	.272***
RCADS-P 아동 내면화 문제	.355***	.165**
자율성 지지 양육	-.362***	-.109†

*** $p < .001$ ** $p < .01$ * $p < .05$

기대(Francis & Chorpita, 2010)를 지지한다.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비지지적 양육 반응과의 관계에서도 두 요인 모두 처벌 반응(F1 $r = .340$, F2 $r = .114$, $p < .05$) 및 심리고통 반응(F1 $r = .519$, F2 $r = .272$,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F2와 CCNES 처벌 반응의 상관 효과가 작은 점은, F2가 자녀의 신체 증상에 한정된 facet이라는 점에서 처벌적 양육과의 직접적 개념 중첩이 적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내면화 문제(RCADS-P)와는 F1 $r = .355$, F2 $r = .165$ (모두 $p < .01$)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양육과는 F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r = -.362$, $p < .001$)이 관찰되어 자녀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자율성을 제한하는 양육 행동과 연결됨을 시사한다. F2와 자율성 지지 간 상관은 한계적으로 비유의하였다($r = -.109$, $p = .053$). PANAS 긍정 정동 척도는 PBA-Q와 개념 수준에서 직접 대응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인타당도: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

한국판 PBA-Q(아동용)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불안(DASS-21 불안)이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한국판 PBA-Q의 두 요인)을 거쳐 양육 행동(CCNES 비지지 반응, AUTO 자율성 지지)을 매개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RCADS-P 6개 하위척도)에 이르는 직렬 매개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모형은 한국판 PBA-Q(아동용)가 이론적으로 가정된 인지-양육-아동 결과의 관계망 내에서 부모 불안의 세대 간 전이를 매개하는 핵심 인지 변인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8) = 18.64$, $p = .017$, CFI = .992, TLI = .945, RMSEA = .065 (90% CI [.026, .104]), SRMR = .028로 권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모형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경로별 직접 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불안은 한국판 PBA-Q의 두 요인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여(F1 $\beta = .424$, F2 $\beta = .350$; 모두 $p < .001$), 부모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신념도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F1은 양육 행동의 두 측면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비지지적 양육 반응(CCNES)에는 정적 영향($\beta = .498$, $p < .001$)을, 자율성 지지(AUTO)에는 부적 영향($\beta = -.400$, $p < .001$)을 보인 반면, F2는 두 양육 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변수에 대한 직접 효과의 경우, F1은 RCADS-P 6개 하위척도 중 분리불안을 제외한 5개 척도(사회불안 $\beta = .322$, 강박 $\beta = .274$, 일반 불안 $\beta = .248$, 공황 $\beta = .229$, 우울 $\beta = .173$; 모두 $p < .05$)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표 5. 직렬 매개 경로분석 결과 - 직접 효과 (Direct Effects)

단계	경로	β
1단계: 부모 불안 → PBA-Q	DASS-A → F1 (정서적 취약성)	.424***
	DASS-A → F2 (건강염려)	.350***
	F1 → CCNES (비지지 반응)	.498***
2단계: PBA-Q → 양육 행동	F1 → AUTO (자율성 지지)	-.400***
	F2 → CCNES	.049
	F2 → AUTO	.072
	F1 → 사회불안	.322***
	F1 → 강박	.274***
	F1 → 일반불안	.248**
	F1 → 공황	.229***
	F1 → 우울	.173*
3단계: PBA-Q → 아동 내면화	F1 → 분리불안	.085
	F2 → 강박	-.121*
	F2 → 사회불안	.078
	F2 → 일반불안	.042
	F2 → 공황	.114
	F2 → 우울	.066
	F2 → 분리불안	.091
4단계: 양육 행동 → 아동 내면화	CCNES → 강박	.208*
	AUTO → 우울	-.128†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F2는 결과변수 대부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양육 행동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에서는 일부 경로만 유의하였는데, CCNES는 아동의 강박에 정적 영향($\beta = .208, p < .05$)을, AUTO는 우울에 경계 수준의 부적 영향($\beta = -.128, p < .10$)을 나타냈다.

부트스트래핑(5,000회 재표집, BCa 95% 신뢰구간)을 통해 직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F1을 매개로 양육 행동을 거치는 다음 세 경로가 유의하였다: F1 → CCNES → 강박($\beta = .076, 95\% \text{ CI } [.024, .150]$), F1 → CCNES → 우울($\beta = .044, 95\% \text{ CI } [.002, .100]$), F1 → AUTO → 우울($\beta = .030, 95\% \text{ CI } [.000, .061]$). 반면 F2를 거치는 직렬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F1의 결과변수에 대한 직접 경로가 양육 행동의 매개

표 6. 직렬 매개 경로분석 결과 - 직렬 간접효과 (Serial Indirect Effects)

간접 경로	β	95% CI (BCa)
DASS-A → F1 → CCNES → 강박	.076*	[.024, .150]
DASS-A → F1 → CCNES → 우울	.044*	[.002, .100]
DASS-A → F1 → AUTO → 우울	.030†	[.000, .061]

* $p < .05$ † $p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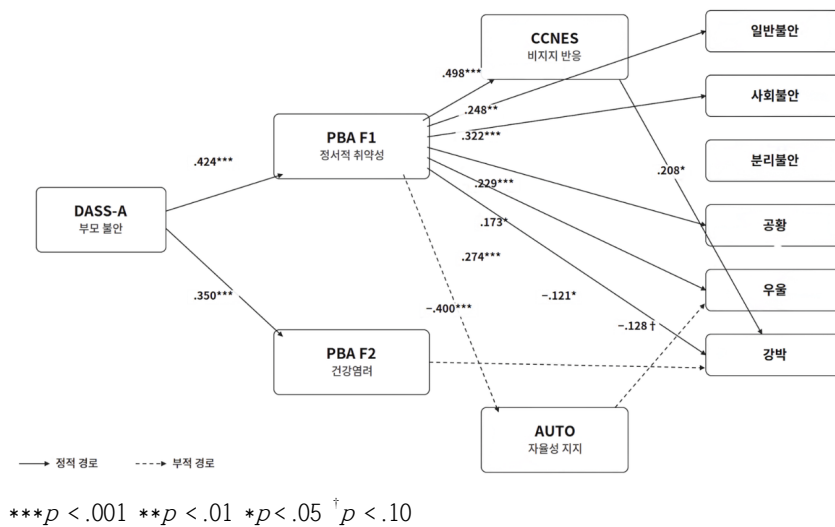


그림1. 한국판 PBA-Q(아동용) 직렬매개 경로분석 모형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5개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유지되어 부분 매개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자녀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행동적 양육 경로 외에도 정서 전이, 인지 모델링,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 비행동적 경로를 통해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2는 자녀의 신체 증상에 국한된 협소한 신념 영역을 측정하기 때문에 매개 모형 내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준거타당도 분석에서 관찰된 F1과 F2의 비대칭적 상관 패턴과 일관된 결과이다. 종합하면, 본 결과는 한국판 PBA-Q(아동용)가 이론적으로 가정된 인지-양육-아동 결과의 관계망

내에서 의미 있는 매개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본 척도의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지지한다.

논 의

본 연구는 Francis와 Chorpita(2010)가 개발한 자녀의 불안에 대한 부모의 신념 척도(PBA-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국내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PBA-Q(아동용)는 원척도의 4요인 구조와 달리 아동의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F1)과 아동 불안

신체화에 대한 건강염려(F2)의 2요인, 13문항 구조로 재정립되었으며, 양호한 내적 일관성과 수렴·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을 통해 PBA가 부모의 불안과 아동의 불안·우울 문제를 잇는 매개 변인으로 기능함이 확인되었다.

한국판 PBA-Q(아동용)가 원척도와 상이한 요인 구조를 보인 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임상적 특성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Francis와 Chorpita(2010)의 원연구는 불안 장애 진단을 위해 내원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의 불안 행동에 대해 염려하는 지역사회 부모를 표본으로 하였다. 임상 집단에서는 불안에 대한 신념 체계가 더 세분화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 집단에서는 불안의 유해성에 대한 신념과 부모의 걱정이 뚜렷하게 분화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Flessner et al., 2017).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모의 양육 신념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서구 문화권과 달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녀의 정서적 경험을 자신의 책임으로 강하게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정영선, 2021). 이로 인해 원척도에서 구분되었던 자녀 불안에 대한 부모 자신의 고통과 자녀 불안의 부정적 결과 예상이 한국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불안을 염려하는 하나의 통합된 부정적 신념 체계로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척도의 구조적 간명성(parsimony)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양육 관련 척도 연구들에서는 이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들이 실제 요인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고된다(Tolliver-Lynn, 2021). Francis와 Chorpita(2010)의 원연구에서도 일부

문항이 다중 요인에 부하되거나 요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복성을 배제한 결과 설명력이 보다 높은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특히 문항 정제 단계에서 제거된 문항들이 주로 원척도의 발달적 정상성 인식 및 좋은 부모 신념 영역에 속하였고, 경쟁모형 비교에서 한국판 2요인 모형이 1요인 및 원척도 4요인 모형보다 일관되게 우수하였다는 점은, 한국판 2요인 구조가 단순한 문항 축소가 아니라 원척도 일부 하위 영역의 구조적 비기능을 반영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주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하의 해석은 횡단 자료에 기반한 상관 및 매개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변인 간 관계를 인과로 단정하기보다 이론적으로 가정된 경로에 대한 잠정적 근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판 PBA-Q(아동용)의 아동의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F1)은 부모의 불안이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매개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가 자녀의 불안을 위협하고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비지지적 양육 반응의 증가 및 자율성 지지의 감소와 관련되었으며, 아동의 다양한 내면화 문제와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불안 경로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가 관찰된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확인한 국내 선행연구(홍수빈, 남은영, 2024)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불안 자체보다 자녀의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는지가 아동 발달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Francis와 Chorpita(2011) 및 Francis와 Manley(2022)의 논의를 국내 표본에서 지지한다. 더불어 양육 행동의 매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F1의 직접 경로가 다수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유지되어, 부모의 부정적 신념이 외현적 양육 행동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 행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 경로(예: 정서 전이, 인지 모델링 등)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판 PBA-Q의 건강염려(F2)가 아동의 강박 증상과 유의미한 부적 관련을 보이는 이례적 경로가 관찰되었다. 이는 부모의 주의가 자녀의 신체 증상에 과도하게 집중될 때, 아동의 불안이 인지적·사고적 강박의 형태로 발달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는 보상적 과정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나, 효과 크기가 미약하고 양육 행동을 거치는 직렬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면 자료에 기반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모 신념의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 증상과의 관련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잠정적 단서로 해석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이처럼 F2가 양육 행동 및 대부분의 결과변수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은, F2가 자녀의 신체 증상에 국한된 협소한 facet을 측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준거타당도 분석에서 F2가 처벌적 양육 반응 및 아동 내면화 문제와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인 비대칭적 패턴과 일관된다.

셋째, 본 연구는 PBA-Q의 한국판 타당화와 함께 PBA가 부모의 불안과 아동의 다양한 내면화 문제를 잇는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부모를 위한 개입 전략 개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과보호, 과잉 통제와 같은 부모의 외현적 양육 행동에 집중해 왔으나(McLeod et al., 2007),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인지적 기제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그 인지적 기제인 부모의 신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 불안에 대한 부모의 외현적 행동 수정을 넘어, 그 행동과 관련된 신념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며(Francis & Chorpita, 2011; Friedman et al., 2023), 부모의 신념을 표적으로 하는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불안이 해롭다는 신념을 지닌 부모는 가족 수용 행동을 더 빈번하게 나타내고(Johnco et al., 2022) 노출 기반 치료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Pereira et al., 2016; Settapani & Kendall, 2017; Wolk et al., 2016), 본 척도는 이러한 취약성을 지닌 부모를 조기에 선별하여 신념을 표적으로 한 인지적 개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후속 연구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4-10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령 범위는 불안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취학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은 불안의 발현 양상과 부모의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Edwards et al., 2010), 후속 연구에서는 취학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PBA의 매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학력 및 경제 수준이 대졸 이상 중산층에 편중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양육 및 불안 관련 연구들이 고학력·중산층 부모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하며(Hurrell et al., 2017; Tolliver-Lynn, 2021), PBA 타당화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력과 소

특의 다양성을 고려한 표본을 통해 PBA의 신뢰도 및 매개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주양육자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아버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불안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Teetsel et al., 2014), 아버지의 불안 신념(PBA)이 과잉 통제와 자녀 불안 사이를 매개한다는 연구(Francis & Manley, 2022)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한 PBA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수행되어 부모의 불안 신념과 아동 문제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종단적 설계를 통해 불안 전이의 경로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고인숙 (2010). 아동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학적 변인 및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2), 21-36.
- 남은영, 박소은, 이선형 (202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상위정서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7(1), 21-38.
-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 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 (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태완, 이지연, 김은석 (2018).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이 아동기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4), 247-275.
- 이하람, 신나나 (2020). 유아의 행동억제와 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71-88. <https://doi.org/10.14698/jkcce.2020.16.06.071>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정영선 (202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 불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5), 641-653. <https://doi.org/10.5723/kjcs.2021.42.5.641>
- 홍수빈, 남은영 (202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상위정서철학 및 아동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6(1), 1-20.
- Beato, A., Pereira, A. I., & Barros, L. (2017). Parenting strategies to deal with children's anxiety: Do parents do what

- they say they do?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8(3), 423-433.
<https://doi.org/10.1007/s10578-016-0670-3>
- Beato, A., & Rosa, P. J. (2024). Profiling parent's responses to children's anxiety: A qualitative study combined with multiple correspondence and cluster analys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3, 2870 - 2886.
<https://doi.org/10.1007/s10826-024-02898-9>
- Beesdo, K., Bittner, A., Pine, D. S., Stein, M. B., Höfler, M., Lieb, R., & Wittchen, H.-U. (2007). Incidenc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nd the consistent risk for secondary depression in the first three decades of lif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4(8), 903-912.
<https://doi.org/10.1001/archpsyc.64.8.903>
- Beesdo, K., Knappe, S., & Pine, D. S. (2009).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DSM-V.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2(3), 483-524.
<https://doi.org/10.1016/j.psc.2009.06.002>
- Butler, G., & Mathews, A. (1983). Cognitive processes in anxiety.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1), 51-62.
[https://doi.org/10.1016/0146-6402\(83\)90015-2](https://doi.org/10.1016/0146-6402(83)90015-2)
- Bögels, S. M., & Brechman-Toussaint, M. L. (2006). Family issues in child anxiety: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rearing and belief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7), 834-856.
<https://doi.org/10.1016/j.cpr.2005.08.001>
- Bornstein, M. H., Putnick, D. L., & Suwalsky, J. T. D. (2018). Parenting cognitions → parenting practices → child adjustment? The standard mode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2), 399-416.
<https://doi.org/10.1017/S0954579417000931>
- Chorpita, B. F., Yim, L., Moffitt, C., Umemoto, L. A., & Francis, S. E. (2000). Assessment of symptoms of DSM-IV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 revised child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8), 835-855.
[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130-8](https://doi.org/10.1016/S0005-7967(99)00130-8)
- Cohodes, E. M., Chen, S. H., & Lieberman, A. F. (201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moderates effect of maternal symptomatology on preschooler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1831-1843.
<https://doi.org/10.1007/s10826-017-0699-3>
- Costello, E. J., Mustillo, S., Erkanli, A., Keeler, G., & Angold, A. (2003).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837-844.
<https://doi.org/10.1001/archpsyc.60.8.837>

- Creswell, C., & O'Connor, T. G. (2006).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maternal and child 'anxious cogni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135-147.
<https://doi.org/10.1007/s10608-006-9021-1>
- Dodd, H. F., Hudson, J. L., & Rapee, R. M. (2017). Temperament in childhood internalizing disorders. In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pp. 504-524). John Wiley & Sons.
<https://doi.org/10.1002/9781118877142.ch31>
- Dubi, K., Rapee, R. M., Emerton, J. L., & Schniering, C. A. (2008). Maternal modeling and the acquisition of fear and avoidance in toddlers: The influence of stimulus preparedness and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499-512.
<https://doi.org/10.1007/s10802-007-9195-3>
- Edwards, S. L., Rapee, R. M., & Kennedy, S. (2010). Prediction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Examin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3), 313 - 321.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160.x>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Procedures and scoring*[Unpublished scale]. Arizona State University.
- Flessner, C. A., Murphy, Y. E., Brennan, E., & D'Auria, A. (2017). The Parenting Anxious Kids Ratings Scale-Parent Report (PAKRS-PR):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8*(4), 651-667.
<https://doi.org/10.1007/s10578-016-0688-6>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ttps://doi.org/10.2307/3151312>
- Francis, S. E., & Chorpita, B. F. (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questionnair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2*(1), 138-149.
<https://doi.org/10.1007/s10862-009-9133-5>
- Francis, S. E., & Chorpita, B. F. (2011).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anxiety as a mediator of parent and chil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5*(1), 21-29.
<https://doi.org/10.1007/s10608-009-9255-9>
- Francis, S. E., & Manley, S. (2022).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as a mediator of parental overcontrol and adolescent

- anxie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 2885-2902.
<https://doi.org/10.1007/s10826-022-02378-y>
- Friedman, H. P., Bilsky, S. A., & Lubert, M. J. (2023). Parent anxiety, child anxiety,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and parenting behaviors: Direct and indirect association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2, 3419-3429.
<https://doi.org/10.1007/s10826-023-02665-2>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Meta-emotion philosophy and family functioning: Reply to Cowan (1996) and Eisenberg (1996).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84-291.
<https://doi.org/10.1037/0893-3200.10.3.284>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The inner resources for school performance: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https://doi.org/10.1037/0022-0663.83.4.508>
- Hammerness, P., Harpold, T., Petty, C., Menard, C., Zar-Kessler, C., & Biederman, J. (2008). Characterizing non-OCD anxiety disorders in psychiatrically 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5(1-3), 213-219.
<https://doi.org/10.1016/j.jad.2007.05.012>
- Hudson, J. L., & Rapee, R. M.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al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12), 1411-1427.
[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107-8](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107-8)
- Hudson, J. L., Murayama, K., Meteyard, L., Morris, T., & Dodd, H. F. (2019).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anxiety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7), 1121-1133.
<https://doi.org/10.1007/s10802-018-0495-6>
- Hurrell, K. E., Houwing, F. L., & Hudson, J. L. (2017).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emotion coaching in famil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n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 569 - 582.
<https://doi.org/10.1007/s10802-016-0180-6>
-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2017). *The ITC guidelines for translating and adapting tests*(2nd ed.).
https://www.intestcom.org/files/guideline_test_adaptation_2ed.pdf
- Johnco, C. J., Salloum, A., De Rosa, N., & Storch, E. A. (2022). The role of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and attachment on parental accommodation of child anxiety.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 51-62.
<https://doi.org/10.1007/s10802-020-00722-8>
- Jun, D., Johnston, V., Kim, J. M., & O'Leary, S. (2018). Cross-cultural adaptation and

- validat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21 (DASS-21) in the Korean working population. *Work*, 59(1), 93-102. <https://doi.org/10.3233/WOR-172661>
- Kaiser, H. F. (1970). A second generation little jiffy. *Psychometrika*, 35(4), 401-415. <https://doi.org/10.1007/BF02291817>
- Kass, R. E., & Raftery, A. E. (1995). Bayes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0(430), 773-795. <https://doi.org/10.1080/01621459.1995.10476572>
- Lebowitz, E. R., Woolston, J., Bar-Haim, Y., Calvocoressi, L., Dauser, C., Warnick, E., Scahill, L., Chakir, A. R., Shechner, T., & Herber, L. E. (2013). Family accommodation in pediatric anxiety disorders. *Depression and Anxiety*, 30(1), 47-54. <https://doi.org/10.1002/da.21998>
- Lieb, R., Miché, M., Gloster, A. T., Beesdo-Baum, K., Meyer, A. H., & Wittchen, H.-U. (2016). Impact of specific phobia on the risk of onset of mental disorders: A 10-year prospective-longitudinal community study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epression and Anxiety*, 33(7), 667-675. <https://doi.org/10.1002/da.22487>
- Lobo, F. M., Lunkenheimer, E., Lucas-Thompson, R. G., & Seiter, N. S. (2021). Parental emotion coaching moderates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on internalizing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30(4), 1023-1039. <https://doi.org/10.1111/sode.12519>
- Lovibond, S. H., & Lovibond, P. F. (1995). *Manual for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2nd ed.). Psychology Foundation of Australia.
- MacCallum, R. C., Roznowski, M., & Necowitz, L. B. (1992). Model modification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problem of capitalization on ch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1(3), 490-504. <https://doi.org/10.1037/0033-2909.111.3.490>
- Malhotra, N. K., & Dash, S. (2011). *Marketing research: An applied orientation* (6th ed.). Pearson.
- McLeod, B. D., Wood, J. J., & Weisz, J. R.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2), 155-172. <https://doi.org/10.1016/j.cpr.2006.09.002>
- Melamed, B. G. (1993). Putting the family back in the child.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3), 239-247. [https://doi.org/10.1016/0005-7967\(93\)90022-M](https://doi.org/10.1016/0005-7967(93)90022-M)
- Merchant, S. (2024).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 review of the past decade of research. *Psychology*, 15(3), 355-378. <https://doi.org/10.4236/psych.2024.153022>
- Pereira, A. I., Muris, P., Mendonça, D.,

- Barros, L., Goes, A. R., & Marques, T. (2016). Parental involvement in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for anxious children: Parents' in-session and out-session activiti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reatment outcom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7*(1), 113-123.
<https://doi.org/10.1007/s10578-015-0549-8>
- Polanczyk, G. V., Salum, G. A., Sugaya, L. S., Caye, A., & Rohde, L. A. (2015). Annual research review: A meta-analysis of the worldwid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3), 345-365.
<https://doi.org/10.1111/jcpp.12381>
- Price, N. N., & Kiel, E. J. (2022). Longitudinal links among mother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anxiety.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2), 241-254.
<https://doi.org/10.1007/s10802-021-00804-1>
- Reiss, S. (1991). Expectancy model of fear, anxiety, and panic. *Clinical Psychology Review, 11*(2), 141-153.
[https://doi.org/10.1016/0272-7358\(91\)90092-9](https://doi.org/10.1016/0272-7358(91)90092-9)
- Rork, K. E., & Morris, T. L. (2009). Influence of parenting factors on childhood social anxiety: Direct observa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1*(3), 220-235.
<https://doi.org/10.1080/07317100903099274>
-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2), 1-36.
<https://doi.org/10.18637/jss.v048.i02>
- Settipani, C. A., & Kendall, P. C. (2017). The effect of child distress on accommodation of anxiety: Relations with maternal beliefs, empathy, an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6*(6), 810-823.
<https://doi.org/10.1080/15374416.2015.1094741>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https://doi.org/10.1037/0012-1649.43.3.633>
- Spence, S. H. (1994). The structure and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6), 545-570.
- Teetsel, R. N., Ginsburg, G. S., & Drake, K. L. (2014). Anxiety-promoting parent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anxious mothers and father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 133-142.
<https://doi.org/10.1007/s10578-013-0384-8>
- Tolliver-Lynn, M. (2021). *Controlling, protective, or both: An exa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s associated with child anxiety*

- (Order No. 28652351)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 Van der Bruggen, C. O., Stams, G. J. M., & Bögels, S. M. (2008). Research review: The relation between child and parent anxiety and parental control: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2), 1257-1269.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8.01898.x>
- Ver Pault, M., Dai, Y. G., Abel, M. R., Carter, A. S., Henin, A., Kagan, E., ... & Hirshfeld-Becker, D. R. (2024). Screening for fearful and shy temperament in toddlers predicts elevated anxiety symptom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ttps://doi.org/10.1007/s10826-024-02878-z>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https://doi.org/10.1037/0022-3514.54.6.1063>
- Whaley, S. E., Pinto, A., & Sigman, M. (1999). Characterizing interactions between anxious mo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6), 826-836.
<https://doi.org/10.1037/0022-006X.67.6.826>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779.
<https://doi.org/10.1037/0022-3514.70.4.767>
- Wolk, C. B., Caporino, N. E., McQuarrie, S., Settapani, C. A., Podell, J. L., Crawley, S., ... & Kendall, P. C. (2016). Parental attitudes, beliefs, and understanding of anxiety (PABUA):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measur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9*, 71-78.
<https://doi.org/10.1016/j.janxdis.2016.03.001>
- Woodruff-Borden, J., Morrow, C., Bourland, S., & Cambron, S. (2002). The behavior of anxious parents: Examin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of anxiety from parent to child.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64-374.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103_08
- Zabin, M. A., & Melamed, B. G. (1980).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and children's ability to cope with stress.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1*(1), 17-38.
<https://doi.org/10.1007/BF0132143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Questionnaire (PBA-Q)

Darang Lee¹

Eun Young Nahm²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Student¹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translated and validated of the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Questionnaire (PBA-Q), originally developed by Francis and Chorpita (2010) into Korean. Data from 529 mothers raising children aged 4-10 years were analyzed using item analysi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Korean PBA-Q (child version) was restructured into a 2-factor, 13-item model comprising “Emotional Vulnerability regarding Child's Anxiety (F1)” and “Health Anxiety regarding Child's Somatization (F2),” which differed from the original 4-factor structure. SEM confirmed that PBA significantly mediated the transmission of parental anxiety to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Specifically, F1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a range of internalizing problems, including social anxiety, through parenting behaviors, whereas F2 exhibited a small negative direct effect on children's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suggesting that the direction of influence on children's symptom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sub-factors of parental beliefs. This study provides a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parental anxiety-related beliefs in Korea and offers an empirical basis for cognitive interventions targeting irrational parental beliefs in the treatment of childhood anxiety.

Keywords : Parental Beliefs about Anxiety Questionnaire (PBA-Q), Child Anxiety, Scale Valid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